가정 예배 모범

- 2021_11_14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사사기 6장 25~ 40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죽이려고 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해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25-32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일은 바알 제단을 제거하고 아세라를 찍어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그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격분하며 기드온을 찾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가 벌하지 않겠느냐며 사람들을 설득해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바알과 더불어 다툰다의 의미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겁 많고 두려운 기드온이었지만 이 일을 겪으며 바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나만의 우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2) 기드온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모아 전쟁을 준비했지만 곧바로 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왜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징을 먼저 구했을까요?(33-40절)

미디안, 아말렉, 동망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털을 통해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번은 양털만 또 한번은 양털 이외의 마당만 젖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와 같은 표징을 구한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실지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더 간절히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간구합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